

# 미생물균 활용 축산 냄새 저감 효과

## 장수군,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 성과 공유·평가회 가져

장수군이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 성과 공유 및 평가회를 열었다. 이날 평가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농가, 사업관계 공무원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 성과 보고와 사업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은 2021년부터 장수군이 주관하고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센터와 전북대학교가 참여해 생균제를 활용한 축산냄새, 분뇨처리 문제해결, 가축 생산성 향상 등 축산 현안을 해결하고 축산 냄새 저감 실증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장수군 양돈 전체농가인 20 농가와 한우 300 농가가 참여해 미생물제제를 급여하고, 축사에 활용한 결과 돈사 내 오염도를 코로 말는 관능 테스트에서 종전 평균 10.402(돈사 내 공기를 일반 공기 수준으로 희석하는데 필요한 공기량)에서 4.412로 58% 감소했다.

또 지점약취 물질인 암모니아(NH<sub>3</sub>)는 24.73ppm에서 15.35ppm으로 39% 줄



장수군이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 성과 공유 및 평가회를 열었다.

었다. 약취 및 발암물질로 알려진 페놀은 49.61ppm에서 34.48ppm로 30%, 파라크레졸은 191ppb에서 92.33ppb로 51% 감소했다.

양돈농가의 또 다른 악취 원인인 슬러지(배설물)의 경우 약취를 유발하는 혐기균은 12%가 줄고 호기균(산소 요구 미생물)은 196%나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장수군에서 실증

된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통해 농촌의 오랜 숙원인 축산농가 악취 문제를 풀 해법을 찾아낸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을 타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훈식 군수는 "앞으로도 장수군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발전을 위해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사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 설천면 도시재생 동아리·주민공모사업 발굴

## 창의적 콘텐츠 개발로 설천면 지역 활성화 기대

무주군이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설천면 도시재생 동아리 및 주민공모사업'을 발굴해 지역 활성화 바람을 일으켰다. 공동체 강화를 위한 동아리 프로그램은 설천면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동아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천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진행된 '동아리 및 주민공모사업'은 주민들의 신청을 시작으로 서류심사, 전문가 면접 및 심의를 통해 동아리 8

개팀, 주민공모 5개팀이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했다.

동아리 및 주민공모사업 중 △구천동살뽕 △도개비장터 △향토음식사랑회는 설천면의 토종 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성을 살린 먹거리 개발을 위해 힘썼다.

또 △태권관린댄스 △민요연구회 △설천풍물단 등은 전통문화계승과 태권도를 활용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외에도 △소인아트 △솔로몬지역 아동센터 △눈꽃내나무사랑 등은 공예품을 제작하고 창작동화를 만들며,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 소통과 나눔을 이어갔다.

군은 동아리 및 주민공모 사업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이 제안하고 직접 참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설천면 지역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 스스로 그간 만든 작품과 공연으로 지난 10일 성과공유회를 눈꽃내 문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성과공유회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전시 및 공연, 창작동화 낭독회, 먹거리 시사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설천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심정민 센터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도시재생의 밑거름이다"며 "동아리 및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된 팀들의 화합과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설천면의 지역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군민 건강증진 위한 보건진료소 탈바꿈

## 무주군, 주민 질 높은 의료 욕구 부응·건강증진 선제적 대응

무주군이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진료소가 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선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인구의 고령화, 농촌 인구의 감소,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현재의 보건진료소 기능에서 새로운 역할 변화를 찾기 위해 보건의료원장과 함께 보건진료소장이 모여 간담회도 개최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거 1981년부터 지난 40여 년간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요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2022년 기준 지역내에는 9개소(전국 1,904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군은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일차 보건요서비스 뿐 아니라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가능 강화 등 역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군은 관할 인구규모 및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보



건진료소 운영 방안을 모색하면서 진료 기능과 더불어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담당 기관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보건진료소의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교육 등 사업 체계를 이달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찬표 보건의료원장은 "보건진료소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농어촌 보건요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진료의 소홀함이 없이 실효성 있는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보건진료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고원 명품 토마토' 라이브커머스 진행

진안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몰'이 오는 14일 진안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의 토마토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2시부터 네이버쇼핑라이브 도전라이브 카페고리를 통해 '진안고원 토마토'의 생방송 판매를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라이브커머스 진행상품은 진안군 관내 토마토 농가들을 대표해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유통하는 과육이 단단한 유럽종 토마토로 준비했다.

이날 라이브커머스는 진안군청 먹거리정책팀 및 진안군 토마토 공선출하회 소속 농가(마령면 오길택)가 함께 출연해 토마토 달걀볶음, 토마토 마리네이드, 토마토 치즈구이 등 토마토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하고, 영양분과 효능 등을 알아보는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이날 진안고원 유럽종 토마토는 오후 2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20% 할인된 특가인 14,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구매인중 선착순 10명에게는 5킬로그램 토마토 1박스를 추가로 증정하는 '1+1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한 진안고원몰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9일동안 '크리스마스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구매금액별 적립금 리워드 지급 이벤트도 진행한다. 3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부터 최대 3만원까지 진안고원몰에서 사용가능한 적립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겨울옷 나눔

진안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겨울옷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군은 지난 11일 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군청 직원들과 진안군농민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겨울옷들을 성실 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40여명을 대상으로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

진안군에 배치된 계절 근로자는 베트남, 필리핀 등 따뜻한 기후의 나라 출신으로 진안에서 보내는 겨울은 더

욱 혹독하지만 한 상황이다.

하지만 상시 거주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싼 물가로 인해 겨울옷을 직접 준비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돼 추위와 싸우는 모습을 본 인력지원팀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이번 행사가 추진됐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청 전 공무원 메일을 보내고, 농민회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겨울옷 총 130여벌을 기증받아 4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전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첫 설명회 가져

진안군은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홍보에 나선다.

군은 추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 농민단체, 농협 관계자 등이 모여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첫 설명회가 개최됐다.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진안군 민선 8기 혁신전략추진을 위한 지역단위 조직화 핵심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구축 지원,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 등이 추진된다.

특히 마을 주민들 간 계속으로 이뤄진 공동체 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혼자서 시작하기에는 초기 자본이 부족하고 기반이 부족한 예비 청년농이나 귀농인들에게도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장수군이 2023년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의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6일 장계면, 계남면, 계북면의 사업설명회를 거친 후 9일 장수읍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사과 가격의 폭락에 따른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대한 대책방안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으며, 그에 따라 군은 관련 조례 제정과 농산물안정기금을 수립했고 이후 장수군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확정하며 기금 조성목표액을 기존 1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간담회를 거쳐 2023년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 마련을 완료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의 가격 하락 시 그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액지원사업과 농협 등에 출하 약정하고 농산물을 계통출하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계통출하 지원사업이다. 차액지원사업 대상 품목으로는 사과, 오이, 토마토, 포도, 상추, 수박, 버 등 7가지 전라품목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